여배우 최희서가 100km를 뛴 이유 ▶12면

배우 최희서는 2009년 데뷔했지만 이름을 알릴만한 성과 없이 8년간 무명 배우로 살아왔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영화 '박열'을 만났고, 오랫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친 덕분에 작품의 흥행은 물론 올해 주요 영화상에서 신인상을 독차지하고 있다. 2018년 그가 보일 새로운 모습에도 기대의 시선이 향한다.

맏형 염기훈이 꿈꾸는 E-1 챔피언십 ▶2면

'동아시아 축구전쟁' E-1 챔피언십이 일본에서 막을 올린다. 8일 여자부, 9일 남자부 경기를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 북한이 자웅을 겨룬다. 2연패를 노리는 남자대표팀은 베테랑 염기훈이 정신적 버팀목으로 나선다. 그의 발끝에 E-1 챔피언십은 물론 2018러시아월드컵의 향방이 달려있다.

한화 '뉴캡틴' 최진행 1루수 도전, 왜? ▶6면

한화 최진행이 지난달 일본 미야자키 마무리캠프부터 1루수 도전에 나섰다. 2004년 프로 데뷔 이후 줄곧 좌익수와 지명타자로만 뛰었던 그는 "언제라도 1루수로 나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마이너스가 아닌, 보탬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 활용폭을 넓히면 앞으로 야구를 하면서도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도전 이유를 밝혔다.

스포츠동아 Weekend

2017년 12월 8·9일 주말판
sportsdonga.com 10판

'쇠락왕조' 삼성화재 1년만에 명가재건

신진식의 힘

삼성화재가 '도드람 2017~2018 V리그'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삼성화재의 정예 멤버들은 신진식 감독의 담대한 리더십 아래에서 기본과 헌신에 입각한 조직력으로 명가의 재건을 완성해가고 있다. 스포츠동아DB

1 작은 일 툭치고 나쁜 일 빨리 잊는 대범함
2 황동일 등 이름값 연연 않고 역발상 중용
3 팀 리더 박철우의 세심함도 쾌속질주 한몫

11연승 잔치는 끝났다. 그럼에도 '도드람 2017~2018 V리그'에서 삼성화재 대세론을 반박할 이는 거의 없다. 삼성화재 내부에서도 굳이 자신감을 감추지 않는다. 2005년 V리그 출범 이래 11시즌 연속 챔피언결정전(챔프전)에 올랐던 삼성화재다. 이 가운데 8차례 우승했다. 이런 삼성화재가 2015~2016시즌 챔프전 진출에 실패했다. 2016~2017시즌은 아예 '봄배구'조차 못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재건'에 나선 삼성화재는 신진식 감독을 영입했고, 프리에이전트(FA) 센터 박상하를 보강했다. 그 이상의 가치는 삼성화재가 '승리 DNA'를 찾아낸 지점에 있었다. 인적쇄신이라는 리빌딩이 아니라, 기존 선수들의 의식혁신으로 이뤄낸 재건인지라 더 경이롭다.

●'실패한 세터' 황동일은 무엇이 달라졌나?

황동일은 31세다. 삼성화재가 어느덧 4번째 팀이다. 191cm의 키, 2008~2009시즌 신인왕이라는 타이틀은 곧 황동일의 잠재력을 의미했다. 그러나 세터, 라이트, 센터를 전전했어도 잠재력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다. 우리카드가 FA 박상하의 보상선수로 세터 유광우를 지명하자, '삼성화재는 이제 망했다'는 예상이 퍼졌다. 황동일을 대안으로 준비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비관론은 증폭됐다.

대다수가 안 될 것이라 낙인찍었던 황동일을 신 감독은 역발상으로 중용했다. "힘든 시절을 겪었기에 오히려 더 절박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삼성화재에서 세터란 기교를 발휘하는, 리더의 자리가 아니다. 공격수가 최적의 스파이크를 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볼을 배급하는 조력자여야 한다. 황동일은 팀이 원하는 헌신을 온몸으로 수용했다. 기본에 충실한 황동일의 토스는 삼성화재 타이스~박철우 날개 공격수를 빛나게 해줬다. 황동일의 높이 덕분에 블로킹과 리시브 라인의 완성도가 올라갔다.

●신진식의 대범함과 박철우의 세심함이 만들어낸 조화

수장으로서 신 감독의 미덕은 대범함이다. 작은 일에 구애받지 않고, 나쁜 일은 빨리 잊는다. 쇠락하는 듯한 '왕조'를 물려받은 심정에 대해 신 감독은 "과거는 과거, 나는 새롭게 할뿐"이라고 말했다. 선수들의 이름값에 연연하지 않고, 의욕만 봤다.

신 감독의 캐릭터는 삼성화재 선수들이 패배의식을 터는 데 특효약이 됐다. 그리고 선 굵은 신 감독의 보완재로 캡틴 박철우가 있었다. 팀 리더로서 신 감독이 채워주지 못하는 분위기를 박철우가 만들어냈다. 삼성화재 이규남 사무국장은 7일 "박철우는 데이터 이상의 가치로 평가할 선수"라고 말했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손흥민 시즌 6호골…2경기 연속 골맛

손흥민(25)이 시즌 6호골을 기록한 가운데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가 2017~2018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토트넘은 7일(한국시간) 대회 32강 조별리그 H조 6차전에서 아포엘 니코시아(키프로스)에 3-0으로 승리를 거뒀다.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37분 왼발 슛으로 골을 완성해 지난 주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왓포드와의 경기에 이어 2경기 연속 골을 기록했다. 토트넘(5승1무·승점16)은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다. 다음은 손흥민과의 일문일답.

-시즌 6번째 골이다. 소감은?

"골을 넣으면 기분이 좋지만 좋은 가운데서도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을 잘 가려내는 것이 현재 위치에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오늘 경기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혹시 부족한 부분도 많이 보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

-언제 자신의 플레이에 충분히 만족할까?

"나도 잘 모르겠다. 언제쯤 경기를 웃으면서 마무리하고 '내가 진짜 만족하는 경기를 할 수 있다'고 하기는 힘들 것 같다. 하지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상당한 도움이 된다. 축구는 항상 끝이 없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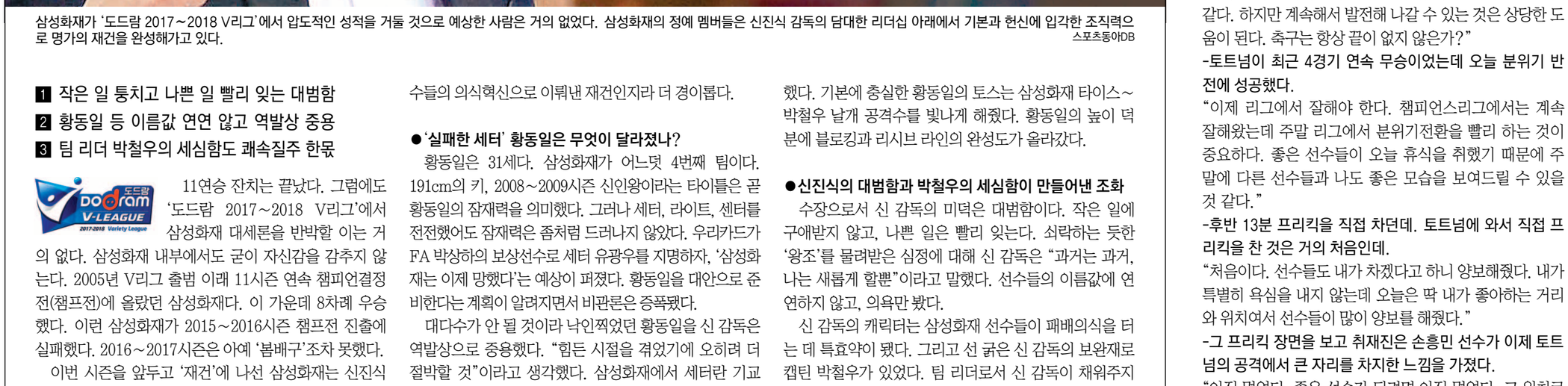
-토트넘이 최근 4경기 연속 무승이었는데 오늘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이제 리그에서 잘해야 한다.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계속 잘해왔는데 주말 리그에서 분위기전환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선수들이 오늘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주말에 다른 선수들과 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후반 13분 프리킥을 직접 차던데. 토트넘에 와서 직접 프리킥을 찬 것은 거의 처음인데.

"처음이다. 선수들도 내가 차겠다고 하니 양보해줬다. 내가 특별히 욕심을 내지 않는데 오늘은 딱 내가 좋아하는 거리와 위치여서 선수들이 많이 양보를 해줬다."

-그 프리킥 장면을 보고 취재진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 토트넘의 공격에서 큰 자리를 차지한 느낌을 가졌다.

"아직 멀었다. 좋은 선수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 그 위치로 가려면 아직 더 공부하고 더 잘해야 한다. 그렇게 한 자리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선수들의 목표고 욕심이다. 나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공부한다. "

런던 | 허유미 통신원